

제 6 차 고베시 기본계획

-2035 년의 고베-

고베시

1. 기본계획 책정에 있어서

고베시의 종합기본계획인 ‘신·고베시 기본 구상(1993년 책정)’, ‘제5차 고베시 기본 계획(2011년 책정)’ 및 ‘고베 2025 비전(2021년 책정)’은 모두 2026년 3월에 계획 기간이 종료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이 지향해야 할 고베의 모습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시에서는 새로운 종합기본계획의 책정을 시민의 시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행정 내부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부서 간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일관성 있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본 구상은 6만 명이 넘는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듭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이 기본 구상은 계획 종료 시기를 정해두지 않고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고베의 ‘기본 이념’으로서 고베가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미래로 이어갈 가치와 미래를 향해 지향해야 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의 하위 계획인 새로운 기본계획은 고베의 지금까지의 역사와 현황, 다양화·복잡화되는 사회과제를 고려하면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2035년의 고베가 지향하는 모습과 그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정리하여 향후 10년간의 지침으로 책정했습니다.

책정 과정에는 100회를 넘는 워크숍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계자와 논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웹 설문조사와 GIGA 스쿨 단말기를 활용하여 시내 초·중학생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모아 총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 고베시 기본구상

고베는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개항 이래 해외와의 교류를 거듭하며 문화와 유행을 일본에 탄생시켜 왔습니다

고베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도시와 사토야마의 공존

세련된 거리 풍경과 상업지역의 활기

도시에 융화된 언덕길도 매일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고베는 사람의 온정이 느껴지는 도시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유대감

다양성이 넘치는 개방적인 기풍

언제나 고베는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지금까지 고베에는 많은 것들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베는 세대와 입장을 초월한 연결 속에서 널리 안팎으로 공헌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져온 기술과 지식의 집적을 통해 시대를 수놓는 산업과 인재가 육성되는 도시로

세계를 향한 바다와 하늘을 통해 사람이 모여 새로운 가치 창조를 실현하는 도시로

누구나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 도와가며 각자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풍요로운 자연과 사람의 삶이 어우러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고베는 언제까지나 도시의 자부심을 키워 다음 세대에 이어갈 것입니다

기본 구상의 전반부에는 고베의 역사와 도시의 형성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항구 도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 ‘사람의 온정이 느껴지는 도시’ 라는 세 가지 고베다움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베는 대도시이면서도 바다와 산이라는 자연의 혜택을 입어 예로부터 ‘진취적인 기풍’ 이 풍부한 국제색 짙은 항구 도시로 발전해 왔고 새로운 유행과 문화를 탄생시켜 왔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계속 닿아 녹음이 우거진 산이 된 롯코산, 초가지붕 민가가 점재하는 사토야마, 예로부터의 경승지인 스마와 다루미의 해안, 이국적인 건물이 남아 있는 거리 풍경이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시장, 정취 넘치는 상업지역, 친근한 언덕길에서 바라보는 전망 또한

선인들이 지키고 가꾸어 온 것입니다. 또한, 고베는 전쟁 피해와 수해, 지진 재해 등 수많은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적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가며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이 있기에 고베에는 다양한 주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돕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반부에는 선인들이 가꾸고 계승해 온 이러한 고베다움을 앞으로도 지키고 살리고 발전시키면서 세대와 입장을 초월한 유대 속에서 널리 안팎으로 공헌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과 메시지가 응축되어 미래를 향한 고베의 바람직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를 수놓는 산업과 인재가 육성되는 도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실현하는 도시’, ‘각자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이 모든 것은 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고베다움을 살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지침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고베가 지향하는 모습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길러집니다.

기본 구상에는 이처럼 언제까지나 고베다움을 갈고닦아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시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 고베의 과거와 현재

(1) 고베의 경제 발전

① 개항과 함께 발전한 도시

고베는 1868년 개항을 계기로 외국인의 거주와 상업이 허용된 거류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양풍의 세련된 건축물이 잇따라 세워지고 유럽과 미국의 상사가 진출하여 면화나 철 등의 수입과 차와 생사의 수출이 활발해짐으로써 일본 굴지의 무역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개항 초기에는 경공업이 중심이었던 무역은 메이지 정부의 정책하에 중공업화가 추진되어 국가 전체의 산업 근대화와 맞물려 조선업과 제철업, 전기기계 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이 고베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고 고베에는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기술력이 모여들었습니다.

메이지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에 걸쳐 서양 문화의 유입과 함께 빵이나 양과자 등의 수요가 높아지자 서양으로부터 제빵사의 기술과 제과 기술이 도입되어 많은 빵집과 양과자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거류지 주변에서는 양복과 구두 제조가 활발해져 ‘고베 양복’, ‘고베 구두’와 같은 브랜드가 확립되고 동시에 진주 가공이나 케미컬 슈즈 등의 산업도 발전하여 고베는 국내에서도 패션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재즈나 골프 등의 스포츠도 고베를 통해 국내로 퍼지고 항구 도시 고베가 지닌 독특한 개방적인 분위기는 다양한 이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국내에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 이외의 기타노 지역이나 시오야에도 이진칸(서양식 저택)이 건립되어 국제색 짙고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모던한 거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쟁 후의 부흥기에는 나가타구에 철공업과 신발 제조업의 소규모 공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인정미 넘치는 상업지역 등 지역의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상점가도 활기를 띠며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제학교와 다양한 종교 시설,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등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일본 거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인재가 활약하고 또한, 감성을 갈고닦은 인재가 세계로 도약하는 도시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베는 개항을 계기로 많은 외국인이 이주해 오고 항상 해외의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기풍을 받아들이면서 국제 도시 고베로서 개성 넘치는 발전을 이루어 일본 경제와 문화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②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의 전환

고베의 산업 구조는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와 해외 조선·철강업의 대두를 계기로 개항 이래 구축해 온 중후장대형 산업에 대한 편중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에 맞춰 전환해 왔습니다. 의류·진주 등의 패션 산업과 국제색 짙은 거리 풍경과 다양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컨벤션

산업 추진에 힘쓴 결과 포트아일랜드 완공을 기념하여 개최된 ‘포트피아 81’에서는 무려 1,600 만 명이라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기기 및 정밀 공업을 비롯하여 지진 재해 이후 의료·바이오 산업의 유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성장 기업과 우수한 인재 유치에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 결과 교토, 오사카 경제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고베 단독으로 경제 순환율을 100% 이상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쿄 일극 집중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고베의 경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성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전통 산업·관광 중심의 교토나 비즈니스·금융 중심으로 하는 오사카와 연계를 도모하여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간사이 지역을 도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권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간다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2) 고베의 인구 추이

① 지금까지의 인구 추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부흥과 함께 제1차 베이비 붐을 맞이하여 출생률 급상승과 함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활발해져 본 시에서도 1992년에는 인구가 15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해 전쟁 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한때 142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지진 재해 부흥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는 회복되어 2004년에는 지진 이전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체적으로는 생활 방식의 변화, 결혼·출산 시기의 다양화,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수명 연장 등을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본 시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2011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② 고베의 인구 동태 특징

시내에는 고등교육 기관이 충실하여 전국 각지에서 학생이 모여들기 때문에 18세부터 23세의 젊은 층의 전입 초과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현내의 다른 도시나 긴키권 내에서의 전입이 많은데 이는 고베시의 학술·연구 환경의 충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취업기를 맞이하는 23세 이후에는 전출 초과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큰 것이 시내 노동력 인구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40대~60대 중장년층에서는 전입 초과가 나타납니다. 고베시의 도시 기능이나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을 찾아 서일본이나 효고현 서부에서 전입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니시구나 다루미구에서는 주변 도시에서의 전입자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③ 향후 인구 전망

2024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70만 명을 밑돌아 9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도쿄권에서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시점에 약 7,000만 명이었던 노동력 인구는 2050년에는 6,300만 명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개호 분야에서는 2050년에 120만 명이 넘는 인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3) 고베의 도시 개발

① 지금까지의 도시 조성

고베시의 도시 발전은 철도 부설과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베는 롯코산맥이 우뚝 솟은 지형적 특성에서 메이지·다이쇼 시대에 평탄한 해안 쪽에 철도가 부설되고 연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해 왔습니다. 전쟁 후 일본 전체적으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었는데 고베시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여 주택지의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베시는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지형으로 평지 면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롯코산 산록부까지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환경 파괴와 토사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를 수용할 기반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롯코산맥 북측에 대규모 뉴타운을 개발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가 추진되었습니다. 시영 지하철 개통과 고베 전철의 연장으로 교외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거주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세이신 지역과 기타구의 연선으로도 인구가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산을 개간하고 그 토사를 이용하여 임해부를 매립함으로써 광대한 주택지와 산업단지를 확보해 온 고베방식의 개발 방법은 '산, 바다로 가다'라고 일컬어지는 고베 특유의 도시 조성 방식입니다.

② 현재의 상황

현재 전국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뉴타운의 올드타운화와 빈집·공터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의 스펠디화가 전국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베시에서는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개발된 뉴타운에 넓은 도로와 공원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왔으나 개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출, 주택 및 공공시설의 노후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롯코산 산록부에서는 과거 무분별하게 개발된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경관이나 환경 면에서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트아일랜드와 롯코아일랜드에서도 사무실과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상승하여 도시 기능 유지가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의 도시 개발이나 지리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베 특유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수많은 재해를 극복해 온 도시

① 재해의 역사

고베시는 롯코산계의 가파른 지형과 세토내해에 면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과거 여러 차례 수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 1938 년의 한신 대수해 때는 집중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시가지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재해를 계기로 롯코산계의 사방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500 기가 넘는 사방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고베시는 공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945 년 고베 대공습으로 시가지의 약 60%가 소실되었고 인구는 약 38 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부흥 계획으로 도시 재건이 진행되어 고베는 다시 국제 무역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1995 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일본 최초의 현대적 대도시 직하형 지진으로 고베에 전대미문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인구는 지진 전 약 152 만 명에서 약 142 만 명으로 감소했고 부흥을 위해 엄격한 재정 운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후 5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총 122 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구호 활동에 참여했으며 재해 자원봉사는 사회 현상이 되어 1995 년은 ‘자원봉사 원년’ 이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대대적인 행정·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위기에서 탈피를 도모하여 2004 년에는 인구가 지진 발생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와 재개발 사업도 2024 년 11 월 신나가타 남쪽 지역이 완료되면서 모든 부흥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베는 다양한 재해를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부흥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시민이 단결함으로써 재생을 이루어냈습니다.

② 시민의 자부심

고베는 예로부터 ‘진취적인 기풍’ 이 넘치고 국제색 짙은 항구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때 민둥산이었던 롯코산은 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식림활동으로 훌륭하게 재생되어 현재는 재해로부터 시민 생활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고베를 상징하는 휴식 공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쟁 재해와 수해, 지진 재해 등

수많은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함께 손을 맞잡고 고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경험이야말로 고베 시민의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의 근간이자 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지진 재해 20년을 계기로 시민에 의해 탄생한 시빅 프라이드·메시지 ‘BE KOBE’는 바로 그 상징이며 고베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과 고베의 매력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5)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전망되는 도시의 변화

① 고베 공항의 국제화

2025년 4월에는 국제 전세편 운항이 시작되고 국내선 운항 횟수가 확대되며 2030년경에는 국제 정기편 운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제 정기 항로를 보유한 고베항에 더해 고베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는 ‘제2의 개항’을 통해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베를 방문함과 동시에 고베에서 인재와 정보의 통로가 세계와 연결될 것입니다.

② 도심 산노미야·워터프론트의 재개발

고베는 전쟁 전부터 철도 연선이나 역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진 재해 이후 복구·부흥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의 매력 향상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진 재해 20년이 경과하여 부흥에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또한, 끊임없는 행정·재정 개혁을 통해 정령시 상위권의 재정력까지 회복한 것을 계기로 역 앞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심·산노미야 재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4월 고베 산노미야 한큐 빌딩 개업을 시작으로 2022년 7월에는 신주오구 종합청사, 2023년 4월에는 히가시 유원지가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또한, JR 산노미야역 새로운 역 빌딩과 구모이도리 5초메 지역의 신규 버스 터미널 빌딩, 산노미야 크로스 스퀘어, 시청 2호관 등의 정비도 착실히 진행되어 2030년경까지 산노미야는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워터프론트에서는 2021년 10월에 고베 포트 뮤지엄이 개업한 이후 2024년 봄에 고베 포트 타워의 리뉴얼이 완료되었고 2025년 4월에는 지라이온 고베 아레나가 개업했습니다. 앞으로 신코 부두 서쪽 지역의 marina 정비, 교바시 선착장 매립을 통한 회유성 향상, 나카 부두 주변 지역의 재정비가 진행되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③ 역 주변의 리노베이션

교외에서는 전쟁 전부터 선인들이 구축해 온 철도망 등의 기존 인프라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도시의 모습과 분위기를 인상 깊게 하는 ‘도시의 얼굴’이 되는 역과 역 앞 공간의

리노베이션에 힘써 왔습니다. ‘묘다니 역’, ‘세이신추오 역’, ‘다루미 역’ 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거점이 되는 역을 중심으로 역 앞 광장 리뉴얼 및 라이트업, 휴식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구청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와 상업시설 리뉴얼, 육아·문화 환경의 확충, 직주근접의 실현 등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 각지에서의 리노베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민간 투자 유발과 더불어 차례로 새로운 ‘도시의 얼굴’ 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④ 산림·사토야마의 재생

고베는 바다와 접한 시가지 바로 뒤편에 웅장한 롯코산맥이 이어지고 북부에는 전원과 사토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고베의 산림은 그 대부분이 과거에 장작·숯을 얻던 신탄림으로 천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연료와 비료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사토야마의 이용이 중단된 결과 큰 나무와 상록수로 숲이 어두워져 어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충해 증가, 대나무 숲의 무성한 번식, 숲길의 소실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민등산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롯코산은 메이지 시대 이후 대규모 식림으로 현재는 산 전체가 녹음으로 덮여 있지만 일부에서는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베의 산림·사토야마를 건강한 상태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산림의 적절한 벌채와 자원 활용, 그리고 차세대 산림의 재생까지를 하나의 사이클로 파악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베시산 목재의 유통 촉진 및 보급, 산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 인재 양성 등에 힘써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재생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4 기본 계획

(1) 10년 후의 도시상

① '함께 그린 10년 후의 고베'

아래 도시상은 고베시 기본구상에 제시된 기본 이념과 '고베다움'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관계자와 함께 그려낸 10년 후(2035년) 고베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인구 감소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이 도시상을 시민·행정 등 다양한 주체와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바다와 산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운 자연과 역사와 함께 걸어온 도시의 자부심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2035년의 고베

고베 공항과 고베항은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 그곳에는 끊임없이 사람과 물건, 정보가 모이고 다양한 문화가 오가며 새로운 바람이 분다.

도심에는 세련되고 편안한 분위기와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넘친다. 주변으로 펼쳐진 교통망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교류가 생겨나고 도시의 매력이 더욱 깊어진다.

삶이 숨 쉬는 거리에서는 개성 넘치는 역을 중심으로 각자의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실현되며 여유롭고 품위 있는 시간이 흐른다.

산에서 바라보면 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촌과 사토야마, 풍요로운 자연이 유유히 펼쳐지고 밤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야경이 환상적으로 수놓아진다. 바다로 향하면 뱃고동 소리와 바닷바람이 반기고 재즈를 꽃피운 항구 도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접하며 호화로운 시간에 잠긴다. 음식은 자연의 혜택과 사람의 손길을 통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킨다.

일과 배움의 장에서는 경험과 새로운 도전이 융합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넘친다.

도시 곳곳에서 서로 다른 세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모두의 미소가 넘쳐 도시의 따뜻함이 안식을 선사한다.

사람들의 삶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쌓아온 굳건한 토대 위에 지켜지고 있으며 각자의 환경을 배려하는 행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안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도시의 자부심은 고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키워져 힘차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

② KGI(수치 목표)

KGI(Key Goal Indicator)는 고베시가 지향하는 '10년 후의 도시상'을 나타내는 수치 목표입니다. 시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과 더불어 경제 지표와 인구 지표를 조합함으로써 고베가 지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KGI는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감하게 높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사회와 지역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인 연구가 요구되지만 그 도전 과정은 시민과 시정에 있어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높은 목표를 내거는 것은 고베시 도시 경영의 이념과 뜻을 구현하는 것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제 지표】

· 실질 GDP 성장률 1% 이상(연환산)의 달성
'실질 GDP(시내총생산)'는 시내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의 총액을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질 GDP'는 물가 변동 등을 제외한 실제 성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공항의 국제화, 산노미야의 재정비,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향상시켜 국가 전체 목표와 같은 수준인 연간 1%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합니다.

· 지역 경제 순환율 100% 이상 유지
'지역 경제 순환율'은 시내의 수익 창출 능력과 지역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내에서 창출된 부(돈)가 얼마나 시내에서 소비되고 있는가 등을 나타냅니다. 시내 점포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인근 지역에서도 종업원이 모이는 지역 기업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에 이 지표는 높아지며 100%를 넘으면 지역에서 경제가 활발하게 순환하고 독립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100% 밑돌면 베드타운의 경향을 보입니다.) 향후 고베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가 순환하는 고베 독자적인 경제권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경제순환율 = 시내총생산(GDP) / 시민소득

【인구 지표】

· 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가지※의 비율을 유지
'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가지'란 일정 수준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병원, 학교, 슈퍼마켓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말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지역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주지로서 선택받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DID(Densely Inhabited District) 지역을 준용. 산출은 고베시 독자 지표(2025년도 시점)를 설정

· 22~39세 사회적 이동에 따른 전출 초과를 해소
본 시는 대학 진학 등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전입해 오는 반면 취업이나 결혼·육아 시기에 전출하는 사람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확충, 육아 지원, 주거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여 젊은 세대가 계속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행복도 지표】

· 웰빙 지표※에 기초한 행복도 6.5 이상, 생활 만족도 7.0 이상 확보 (2025년도 고베시 실적)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는 시민이 얼마나 심신이 건강하게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경제 성장보다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한 것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건강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수치는 각 도시 시민의 가치관에 기반한 행복감 등의 평균치이며 일률적으로 다른 도시의 수치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일반사단법인 스마트시티 인스티튜트 '지역 행복도(Well-Being) 지표'

(2) 도시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

【기본 자세】

향후 10 년간 고베뿐만 아니라 도쿄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아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도시의 자부심을 기르고 다음 세대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방향성 I 세계와 연결되는 두 개의 항구 ‘새로운 시대의 국제도시’ 로

고베는 예로부터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기풍을 받아들이며 도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공항의 국제화로 고베는 국내외와의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다양한 인재·기술·문화를 받아들여 고베의 강점과 융합함으로써 사람·도시·일자리의 매력을 높이고 앞으로도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항구 도시’ 를 지키고 가꾸어 세계에 열린 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받아들여 고베에 대한 애정을 가슴에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흐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과 풍요로운 자연·문화와의 조화 등의 매력에 더해 도심·워터프론트 재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국내외에 고베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에서 모여드는 다양한 인재와 기업과 시내의 대학, 기업, 행정 기관 등이 조직을 넘어 연계하여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독립된 경제권을 지탱하는 제조업, 항만, 농수산업, 식품, 관광, 의료·바이오 등 기존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 산업의 창출을 가속화함으로써 도쿄 일극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간사이권 더 나아가 일본 전체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능 강화를 통해 고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의 국제도시로서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베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개성 넘치는 거리 풍경과 풍요로운 자연은 고베만의 매력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선인들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미래 세대가 충실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 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심부에서는 주거 기능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상업 시설과 업무 기능의 집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로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와 쇼핑과 예술, 식사 등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시가지나 뉴타운에서는 도시의 얼굴인 역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시설의 리뉴얼과 직주근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상점가 등에 살아 숨쉬는 서민 문화를 살려 도시의 매력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다와 산, 농촌·사토야마 지역 등 고베가 자랑하는 풍요로운 자연을 지키면서 시가지와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채로운 거리 풍경을 잇는 대중교통망을 유지·충실화하고 각자의 일상과 비밀상이 교류하는 도시 공간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언제까지나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그리고 국내외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는 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방향성Ⅲ 함께 극복하며 키워온 유대감 ‘언제까지나 행복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도시’ 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길러진 진취적인 기풍과 재해를 함께 극복하며 쌓아온 유대감은 고베의 도시와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불투명하고 변화가 심한 시대에서도 누구나가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언제까지나 ‘사람의 온정이 느껴지는 도시’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고베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비롯하여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민족,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체와 단체가 지역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 지지하며 누구나가 안심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자유롭게 도전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교육 환경의 충실화, 건강·복지 증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를 키우고 누구나가 안심하고 건강하며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구 환경에 공헌하고 차세대를 선도할 방재력을 강화하여 더욱 풍요롭고 질 높은 삶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지진 재해 당시에 받은 많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국내외에 공헌해 가는 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